

영화 속에서 또 하나의 자신을 찾는 사람들

영화를 보며 자신을 꿈꾸다



🕒 강진구

이태석 신부와 앙드레킴을 만든 영화

지난 7월 15일, 환갑을 넘긴 두 쌍의 부부가 아프리카의 남수단으로 향했다. 여행의 목적은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한 관광이 아닌 봉사였다. 피부과병원을 운영하던 유병국, 김혜경 씨 의사부부와 대기업 기술연구소장을 지낸 송기섭, 이재야 씨 부부는 모두 남수단에서 이태석 신부의 뒤를 이어 2년간 현지인들을 돕는 사역을 할 계획이다. 이들이 떠나면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을 꿈꾸게 된 데에는 이태석 신부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담은 영화 <울지마 톤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태석 신부 또한 한 편의 영화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성당에서 본 성자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는 그를 끝내 사제의 길에 들어서게 하였고, 아프리카 수단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처절히 버려진 한센병 환자들 곁으로 다가가도록 인생을 바꾸었다. 이 신부가 어린 시절 본 영화가 정확히 누가 언제 만든 영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최근에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폴 콕스(Paul Cox) 감독의 1999년 작품 <몰로카이의 성인(Molokai: The Story of Father Damien)>은 아닌 듯하다.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 섬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 또한 그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로마교황청은 그의 사랑의 공적을 기려서 성자로 추대한 바 있다.

구수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는 수단의 가난한 한 사람들을 돌보다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죽음을 다룬 감동의 영화다. 영화는 시종일관 ‘왜 그가 그 먼 곳까지 가서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신부 어머니의 말대로 한국에도 의술을 통해 돌볼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야 했을까? 또한, 사회봉사에 인생의 의미를 둔 의사로서의 삶에 그치지 않고 왜,

굳이 신부가 될 필요가 있었을까?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눅 9:48),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10남매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영화는 두 가지 기억을 따라 스크린 위에 영상을 쏘아낸다. 하나는 주인공인 이태석 신부가 저술한 자전적 사역이야기를 담은 저서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에 언급된 이 신부의 삶을 추적하고, 다른 하나는 이 신부의 죽음 이후 지인들의 증언을 담아낸다. 그 가운데서도 이 신부가 사랑했던 수단 현지인들의 기억은 과거에 묻힌 추억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임을 카메라는 숨김없이 담아낸다.

우는 것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원주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이 신부가 생전에 가르쳤던, 수단에 하나밖에 없다는 톤즈의 학생 브라스밴드가 장례행렬에 나설 때 음악은 사랑의 기억을 일깨운다. 수단 학생들의 입에서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노래 ‘사랑해 당신을’을 부르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다. 학생들은 어둠이 둘러싸인 학교를 떠나지 못한 채 이 노래를 부른다. 아름다운 죽음에 이 노래가 이토록 어울릴 줄은 미처 몰랐다. 이 학생들은 평생, 이 한국말로 된 노래를 부르며 이 신부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영화의 힘을 믿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는 현실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아울러 관객들을 꿈꾸게 한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현실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우리는 영화의 힘을
믿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는 현실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며,
아울러 관객들을
꿈꾸게 한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현실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



〈올지마 톤즈〉를 보며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주인공의 삶에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다. 그리고 어떤 관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 것을 다짐하며 극장 문을 나서는 것이다.

한국 최고의 패션디자이너로 이름을 떨친 앙드레 김은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6.25 직후 오드리 헵번 주연의 영화 〈파리의 연인〉을 5번이나 보았다고 했다. 이 영화는 당대 최고의 패션디자이너였던 지방사가 디자인한 옷 50여 벌을 오드리 헵번이 입고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던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본 앙드레 김은 독학으로 패션디자이너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그가 영화 속에서 보았던 것이 비단 오드리 헵번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미래에 의상디자이너가 된 자신의 모습이 등장하는 또 한 편의 영화가 제작되고 있었다.

일본을 만든 아톰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만화주인공은 ‘아톰’이었다.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이 만화의 제목이 ‘우주소년 아톰’이 아니라, ‘철완(鐵腕) 아톰’이며 일본

의 만화가인 테즈카 오사무가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일종의 배신감 비슷한 것을 느끼기도 했다. 어린 시절 내내 나의 마음을 빼앗았던 수많은 만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닌 일본 것이었다는 데서 민족적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문화를 공부해가면서 아톰이라는 만화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톰은 일본인 자신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본인은 아톰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창조성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었다.

아톰은 1952년 일본의 만화잡지 ‘소년(少年)’에 연재된 이후로 63년에 일본의 첫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제작, 방송되어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념비적인 만화다. 한 과학자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슬픔을 덜고자 아들처럼 생긴 꼬마 로봇을 만든다. 그러나 이 과학자는 아톰이 인간처럼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자 실망한 나머지 그만 내다 버린다. 이웃 과학자인 텐마박사(한국에서는 코주부 박사로 알려짐)는 버려진 아톰을 데려다 양아들로 삼고 양육한다. 그러나 아톰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받고 항상 자신이 누구



**아톰으로부터 배운 자신의 정체성, 즉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가치는
일본 산업을 일으키는 중심 테마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에서 작지만 견고하고 오래 쓰는 자동차는 당연히 일본 자동차란 인식은
바로 아톰의 정체성을 획득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영화가 한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그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준다.**

인지에 대해서 텐마박사에게 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를 공격하는 거대한 로봇과 싸워 이기면서 아톰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다. 작지만 10만 마력의 힘을 가진 강하고 아름다운 로봇이란 사실을 말이다. 아톰은 이제 소외받고 멸시당하는 입장에서 주위로부터 칭송받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이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세계열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원자폭탄을 맞는 바람에 도저히 일어설 길이 없다고 믿으며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일본인들에게 아톰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톰은 지구를 침략하는 악하고 거대한 로봇과 싸워 이김으로써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는 새로운 면목을 또한 보여주

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은 일본인은 그 후로 놀라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톰으로부터 배운 자신의 정체성, 즉 '작은 것이 강하고 아름답다'라는 가치는 일본 산업을 일으키는 중심 테마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에서 작지만 견고하고 오래 쓰는 자동차는 당연히 일본 자동차란 인식은 바로 아톰의 정체성을 획득한 이후에 생긴 것이다. 영화가 한 인간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그 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준다.



강진구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